

退溪學적 인간상의 탐색과 전망**

- 《李子粹語》를 중심으로 -

李 東 俊*

• 目 次 •

I. 導 言	IV. 持敬과 人間成就의 길
II. 謙道와 人間의 本來的 實像	V. 結 言
III. 理의 實在性과 仁體의 主體的 認得	

I. 導 言

앞으로 5,6년이 지나면 21세기가 시작되며, 퇴계선생(1501~1570)의 탄생 500주년이 된다. 퇴계는 조선조창건후 100여년 후에 태어나 70평생을 살고 간 분이고 보면 분명 옛날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화한 오늘날 우리가 500년 전의 인물인 이퇴계의 사상을 되돌이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퇴계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여야 할 인간 본연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특히 거대하고 복잡하게 발달하고 인간소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本然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복지국가

* 성균관대 한국철학과 교수

** 이 논문은 1995년 제14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87·8호(1995) 게재논문

의 건설을 희구하고 있다. 현대가 빚은 인간 및 자연공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은 인류가 창조한 위대한 성과이며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과학기술은 정신문화를 계발보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려니와 아마도 과학기술이 빚는 폐해를 극복하려면 또한 과학기술을 역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점에서도 과학기술을 더욱 견실하게 발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주의적 세계관 및 생활양식에 경도·습관화된 나머지 인간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말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이미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더욱 요망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千變萬化하는 현실세계에 대응하면서도, 어떻게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자신의 주체적 성찰을 주안으로 하는 퇴계의 사상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는 바라 하겠다.

퇴계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 할 진정한 인간상을 근원적으로 탐구하여, 어떤 것이 근본이 되는 가치이며 어떤 것이 말단인 것인가, 그리고 참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위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퇴계는 인류공동체를 존중하고 출세간적 도피주의를 비판하였으나, 현실세계에 있어서의 일체의 권위주의와 속물주의를 타기하였다. 퇴계는 인간은 만인공통으로 각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러한 어진 품성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간은 미숙하여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변화를 거듭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인적 기질이 있으나 이를 깨닫고 극복향상하면 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며, 오히려

소인적 기질을 은폐·미화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을 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퇴계가 우려하는 바이다.) 文質彬彬하고 名實相符하려면 개개인은 자기의 역량과 분수를 알아서 알맞게 처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흔히 자신의 실상과는 달리 過濫하게 처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시키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자기의 값을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계는 ‘爲己之學’을 일컬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君子の學은 ‘爲己’일 따름이다. 이른바 ‘爲己’라 함은 張敬夫가 이른바 ‘함이 없이 그러하다’(無所爲而然)는 것이다. 마치 깊은 山 무성한 수풀 속에 한 그루 蘭이 있어서 종일토록 향기를 내면서도 스스로 향기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야말로 君子の 爲己之學에 꼭 맞는 것이다. (『記善錄』 『李子粹語』卷1, 爲學)

퇴계는 지극히 겸허한 가운데서 인간의 본래적 실상을 확인하였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敬思想을 통하여 인간성취의 길을 제시하였다.

II. 謙道와 人間의 本來的 實像

퇴계의 인품과 학문방법은 ‘謙道’라는 말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퇴계가 보여준 평소의 志行出處와 제자들을 계도하는 태도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임종을 앞둔 며칠 사이의 일과 퇴계의 遺戒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퇴계가 70세였던 庚午年 12월, 별세하기 3일전 병세가 중하였을 때 문인들이 점을 쳤는데 『周易』 第 15卦인 謙卦 九三爻를 얻었다. 그 내

용은 “九三은 勞謙이니, 君子有終이니 吉하니라.”이며, 象傳에는 “勞謙君子는 萬民이 服也라.”하였다. 이것은 占辭이기는 하나, 퇴계의 생애와 인품을 적절히 표현하는 문구라 하겠다. 퇴계는 일생일대를 통하여 이룩한 학문적 업적과 教誨한 내용으로 보아 그 수고로움이 어디에 비길 수 없을 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빛이 전혀 없이 겸허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진정 “勞謙君子”라 할 만하다. 『周易』 64卦 中 六爻 모두가 吉祥을 보이는 것은 謙卦 뿐이며 또 主爻인 九三爻가 됴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없다. “克終克始”하여 능히 시작하고 능히 마칠 수 있었으니, 吉하다 함도 당연하다 하겠다. 퇴계가 卒함에 사대부·유생들로부터 愚氓賤隸에 이르기까지 모두 탄식하고 애도하였다 하니 “萬民이 服이라”함이 진실로 옳은 말이다.

“勞謙君子”란 퇴계를 형용하는 매우 적당한 표현이라 하겠으니, 이와 같이 겸허한 모습은 역시 임종 4일전의 遺戒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평소 퇴계는 나아가 출사하기보다는 물러서 학문에 종사코자 하였다. 그러나 晩年에 다시 나라의 부르심으로 왕을 보좌하여 벼슬이 公卿에 올랐다. 그러나 퇴계는 임종을 며칠 앞두고 남기는 말씀은 기록하도록 하였으니, 그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겠으나, 첫째, 예장을 사양할 것과, 둘째, 비석을 세우지 말고 단지 小石에다 「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쓰고 후면에 鄉里世系와 志行出處를 간략하게 쓰도록 이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비문을 짓기를 부탁한다면, 奇高峯같은 이는 반드시 장황하게 실상이 없는 일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히려 스스로 지어 놓은 글이 다른 草文들 속에 있을 것이니 찾아서 써도 좋을 것이라 하였다. 퇴계의 自撰墓碑銘의 數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면서 어리석고 자라서 병도 많았네.

중간에 어찌 학문을 즐기다가 만년에 외람되이 벼슬을 탐하였다.

학문은 구할수록 멀어지고 벼슬은 사양할수록 더욱 주어지네.

나아가 행하려면 넘어지니, 물러나 조용히 지키도다.

근심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가운데 근심이 있네.
造化를 타고 다하여 돌아가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

生而大癡 壯而多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求愈邈 爵辭愈嬰
進行之路 退藏之貞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兮

『周易』謙卦 大象에 “地중에 산이 있음이 겸이니 군자가 본받아 많은 것을 덜고 적은 것을 보태며 사물을 헤아려서 배풀기를 고르게 한다.”고 하였다. 산같이 높으나 표출하지 않고 묻어 두었으니 과연 땅 속에 들어 있는 산의 형상이다. 또한 “많은 것을 덜고 적은 것을 보태며, 사물을 헤아려 배풀기를 고르게 한다.(哀多益寡 稱物平施)”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모로 통찰하여 본래의 상태로 균형을 잡아 주는 것으로 ‘謙道’를 시행하는 규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퇴계 스스로 인격을 수련하여 진실한 자기를 확인하며, 제자들을 勸勉하고 계도하였던 길이었다고 하겠다.

퇴계는 겸허함에서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퇴계는 평생 동안 “學不厭·教不倦”하였던 스승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누구에 대해서도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 퇴계는 “문하의 제자들을 대하는 데에도 마치 ‘朋友’와 같이 하였고, 비록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부르거나 ‘너’라고 하지 않았다.”(『拾遺』 『李子粹語』卷3, 居家)고 한다. 퇴계가 후일 엮었던 서한집인 『自省錄』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스스로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거니와 그 서문에서도, “이제 ‘朋友’와 더불어 講究往復하는 가운데 말을 하게 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노

라…”고 하였다. 더구나 퇴계는 禹景善에게 준 답서에서, “나는 본디 문호를 열어 제자들을 가르칠 뜻은 없었다.”고 하면서 다만, “간혹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사리에 밝지는 못하였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추켜올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너무 잘난 듯이 처신한다. 어떤 이는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고, 어떤 이는 세상의 환난에 너무 쉽게 덤빈다. 무릇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람의 원망과 분노를 사기에 족하여, 계속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평소에 깊이 걱정하는 일들이다.”(『答禹景善』 『李子粹語』卷4, 警戒)라고 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사람들이 서로 성미가 다르고 短處도 각각임을 살펴, 평상심을 지니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본다.

『論語』에는 “사랑한다면 수고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성스럽다면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論語』 憲問)라 하였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어떤 격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君師父가 엄연한 시대에, 제자들을 勸導함에 진력하면서도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고 마치 붕우를 대하듯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는 그 무엇으로 자처하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남을 뜻하는 바라 하겠다.

퇴계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반드시 忠信과 篤實 그리고 謙虛와 恭遜으로 하였다.”(『答禹性傳』 『李子粹語』卷4, 教導)고 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어질지 못하며 무뢰한 무리라 하더라도 한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 실로 남을 도와 선을 행하는 도리이다. 어찌 불의를 더할 뿐이라고 생각하여 취하지 않을 것인가?”(『答宋寡尤』 『李子粹語』卷3, 居家)라 하였다. 어느 일면을 보고 전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 열거할 曹南冥과 관련한 이야기는 그러한 도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퇴계와 고봉의 四七論辨은 너무나도 유명하며 한국 성리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南冥

曹植(1501~1572)은 당시에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할 실천적 도리도 알지 못하면서 四七論 등의 성리학설에 종사하여 이름을 날리고 세상을 속이고 있으니, 이는 퇴계와 같은 어른과 선배들이 자제시키지 않는데 그 까닭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서신을 보내 왔다. 퇴계는 이것을 거울삼아 문인에게 말하고 있다. 南冥의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지금 학자들을 보면 청소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天理를 논하고 있으니, 명성을 흠치고 세상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중상을 당하고 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니, 어찌 선생과 어른 된 이가 꾸짖어 그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答趙樵仲」條下註記, 『李子粹語』 권4, 教導)

실로 “명성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기만한다.(盜名欺世)”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퇴계는 두 방면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마다 품성이 다르므로 일괄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며 부족하더라도 학문하는 뜻을 귀히 여겨 서로 도와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그러하더라도 南冥이 지적하는 바를 깊이 받아들여서 학문하는데 귀감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퇴계는 사람의 여러 가지 資稟에 대하여 말하기를,

학문을 시작할 때에, 예리한 사람은 단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둔한 사람은 정체하여 막힌다. 옛 것을 사모하는 이는 矯激해 보이고, 뜻이 큰 이는 미친 듯하다. 배움이 미숙한 사람은 허위로 보이고, 넘어졌다가 다시 분발하는 사람은 속이는 듯하다. 처음에는 간절했다가 나중에 소홀해지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덮어두었다가 후에 회복하는 이도 있다. 병이 겉에 있는 이도 있고, 병이 속에 있는 이도 있다.(「答趙樵仲」 『李子粹語』卷4, 教導)

라 하여 이루 枚擧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專心致志하여 성공을 기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오히려 그 마음은 가당한 것이니 이 방면의 사람이 다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이고 도둑질한다고 몰아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마땅히 상중하여 함께 힘써야 할 바이라는 것이다.(同上) 사람은 처음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처지에 따라 그 가능성을 모색하여 서로 도움이 됨으로써 항상 진보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도리이지, 한갓 단정적으로 定罪할 것이 아니라 함이다.

다른 한편으로 퇴계는 자신이 남명과 정신적으로 오래 교유한 사이임을 말하고 당시 남쪽 지방에 있는 유일한 高士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남명이 高士임에 틀림없으나, “자고로 高尚之士란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好奇自用)고 하였다. 그런데 기이한 것을 좋아하면 常道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答李剛而」 『李子粹語』卷4, 聖賢)는 것이다. 또 퇴계는 역시 남명의 高士됨을 일컬으면서도 역시 ‘切己根本上의 工夫’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가 南華之學을 주창함을 우려하였다.(同上) 그러나 퇴계는 남명의 비판을 깊이 생각하여 학자들이 학문을 바로하는 데 藥石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퇴계는 答李剛而書에서 이렇게 썼다.

奇斯文이 일찍이 滉과 더불어 四端七情을 논하여 서찰을 왕복한 일이 있었는데 남명이 잘못된 일로 심하게 비판하였고, 심지어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도둑질한 것이라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은 참으로 藥石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평가는 심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答李剛而」 『李子粹語』卷4, 警戒)

우리들이 날마다 성현의 말씀을 강구하면서도 몸소 행함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躬行不逮), 그가 세상을 속인다고 함이 또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비록 스스로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세상에서 멋대로 부른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역시 전연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런즉, 남명의 말이 어찌 奇高峯만이 경계하고 두려워 할 바이겠는가? 진실로 우리가 모두 策勵하여야만 거의 면할 수 있는 것이다.(同上)

그리고 答鄭子仲書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배우기를 원하였으니, 어찌 이름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속이려는 뜻이야 있었겠는가? 그러나 뜻 세움이 독실하지 못하고 道를 행하다가 (끝에 가서)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왕 입으로만 天理를 말하게 될 때, 헛된 명성이 떠돌아 이미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日用躬行하는 데 있어서 한가지라도 信憑할 만한 것이 없다면 비록 도둑질하고 속이는 책임을 면하려고 한들 어떻게 가능하겠는가?(同上)

퇴계는 나와 남을 가릴 것 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서 억제할 것과 扶揚할 것을 고르게 뵈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謙道의 ‘哀多益寡’와 ‘稱物平施’를 다시금 보게 된다.

성리학은 심오한 이론이다. 그리고 퇴계는 성리학의 최고봉으로 칭송된다. 물론 그러하다. 그러나 퇴계 자신에게 있어서 性理之學은 평생사업이었으나, 實踐躬行을 떠나서는 그것은 공리공론임을 면할 수 없다. 퇴계는 “朱자가 늘 배우는 이로 하여금 平易明白處에서 工夫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事親從兄의 日用常行處의 일인가를 물었을 때, 말하기를, ‘그렇다,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이라 하는 것이 다 日用明白處이다.”(『拾遺』 『李子粹語』卷1, 爲學)라 했고, 또 “仁을 행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니, 타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근본 바탕(根本田地)이 없다면 비록 師友가 相從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무익한 데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答柳而見』 同上)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數萬言의 性理論著를 썼을지라도 그것은 훌륭한 업적은 되지만 자랑할 것은 못 되며, 더구나 踐履之學이 아닐 바에는 더

말할 것이 없겠다. 이러한 정신이 謙道의 실상이며 위기지학이라 할 것이다. 퇴계는 ‘爲己之學’과 ‘爲人之學’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教誨하였다.

위기지학은 도리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덕행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으로 삼는다. 가까운 데서 공부를 시작하여, 心得躬行할 수 있기를 기약하는 것이며;
 위인지학이란 心得躬行에 힘쓰지 않고 허식에 힘쓰며 외물을 따라가서 명성과 영예를 구하는 것이다.(『答金富倫』 『李子粹語』卷1, 爲學)

Ⅲ. 理의 實在性和 仁體의 主體的 認得

퇴계는 인간의 주체적 진실성을 가장 긴요하게 본다. 이것이 논의의 핵심이며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퇴계의 성리학설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남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른바 ‘인간의 주체적 진실성’이란 다른 아닌 ‘仁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本節에서 우리가 논의할 바는 첫째로, 퇴계에 있어서 궁극적 진리인 理가 인간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과연 퇴계에 있어서 仁이란 어떠한 개념이며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갖는 근본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는 일이다.

퇴계는 數萬言의 성리학설을 논하였으며 다른 저술 이외에 오늘날까지 전하는 書翰만 하더라도 이천이백여통에 달한다.(『퇴계선생과 제자간의 書簡』, p.5, 國際退溪學會慶北支部, 1992.) 특히 퇴계의 성리학에 대한 조예는 『退溪全書』를 보아 잘 알 수 있으며, 고금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갖는 위상은 贅言을 要치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퇴계 자신은, 謙辭이기는 하겠으나, 스스로 편찬하였고 그의 학문적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서한집 『自省錄』의 서문에서 『論語』의 이

른바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씀으로 말머리를 꺼내고 있다. 즉, “옛날에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은 몸소 실행함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여서였다(古者 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論語』 里仁)라고 함이다. 이를테면 책의 서문에 보이듯이 남에게 써 준 글은 많으나 그것은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옛 사람이 왜 말을 쉽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말한 바를 미처 실행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前節에서 이미 ‘躬行不逮’(答南時甫)란 말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퇴계의 글을 조금만 들추어도, ‘日用躬行之實’(答鄭子中), ‘根本田地’(答柳而見), ‘切己根本上做工夫’(記善錄), 그리고 ‘心得躬行’(金富倫錄)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心得躬行’ 즉 ‘마음으로 깨우쳐 몸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리학을 논하면서 언필칭 일컫는 것은 무엇인가? —퇴계가 理氣心性을 말할 때 ‘氣發’만이 아니라 ‘理發’을 말하였으며, ‘理動’·‘理到’를 말하였다. 그는 主理論者이며 理哲學者다. ‘理動’이란 무엇이고 ‘理到’란 또 무엇이다 라고 해명하기에 무진 노력을 기울인다.

실로 ‘理’字에 대하여 퇴계 자신이 지극히 중시하여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古今人學術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하고 ‘理’자야말로 참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答奇明彦」『李子粹語』卷 2 窮格: 古今人學問道術之所以差者, 只爲理字難知故耳. 所謂理字難知者, 非略知之爲難, 眞知妙解到十分處爲難耳). 그러나 퇴계는 理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이 極尊無對한 궁극적 존재로 보았지만 그것이야말로 乾空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요, 한갓 관념적·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虛하되 지극히 實하고 지극히 無하되 지극히 有하며, 動하되 動함이 없으며, 靜하되 靜함이 없는 것”(同上)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주자가 이미 말했고 또 퇴계가 인용하고 있듯이 理에는 體用이 있어서 “形而上者로 말하면 沖漠한 것이 實로 體가 되고, 事物之間에 發하는 것이 用이 되며, 形而下者로 말하면 事物이 體가 되고 理가 발현하는 것이 用이 된다.”(「朱子答

呂子約書」 및 「心無體用辯」, 『退溪全書』 권41, 雜著)고 하는 것이며, 퇴계는 또 “沖漠無朕한 것은 乾坤에 있어서는 따로 태극의 體가 되어 만상이 다 갖추어 있고, 人心에 있어서는 至虛至靜한 萬用이 갖추어 있으며, 事物에 있어서는 發見流行하는 用이 되어 때와 곳을 따라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心無體用辯」 同上)라 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理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존엄하며 體用을 겸비한 궁극적 원리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퇴계에 있어서 理는 구체적 사실을 떠나 독자적인 것으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퇴계가 만년에 확실히 말한 바 “情意와 造作이 없는 것은 理의 本然한 體이며, 隨寓發見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은 理의 用이다.”(「答奇明彥別紙」 『退溪全書』 卷18)라 하였을 때에도 그것은 구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건곤’과 ‘인심’과 ‘사물’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니, 인간으로서의 ‘心得躬行’의 구체적 사실을 떠나 어떠한 진리를 말하더라도 앞서 일컬은 대로 그것만으로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 ‘日用躬行之實’과 ‘根本田地’가 있어야 하고, ‘切己根本上做工夫’와 ‘心得躬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새삼 요청되는 바라 하겠다.

퇴계는 理가 일용사물, 즉 우리의 구체적 삶을 떠나 論謂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서술하였다. 즉 金明一의 기록에 의하면, 퇴계는 “道는 가까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살피지 않을 따름이다. 어찌 일용사물 밖에 별도로 어떤 다른 도리가 있겠는가?”(金明一錄, 『李子粹語』 권 1, 爲學)라 하였고 또 答南時甫書에서도

이 理는 日用に 가득찬 것으로 다만 作止語默하는 사이와 彝倫應接하는 즈음에 있으니, 平實明白하고 細微曲折하여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그렇지 않은 때가 없다. 드러나 눈앞에 있는가 하면 어느새 숨어들어서 조짐이 없다.

初學이 이런 것을 버리고 갑자기 高深遠大한 것에 중사하여 지름길로 얻으려 한다면, 이것은 自貢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우리네가 할 수 있

는 일이겠는가?(『答南侍甫』 『李子粹語』 권1, 爲學)

라 하였으니,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정신이 퇴계의 진리관의 기본이 되고 있음은 그의 주저라 할 『聖學十圖』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두 가지만 예시해 본다면 첫째로 퇴계는 『聖學十圖』 가운데서, 먼저 「第一太極圖」로 시작되는 前五圖의 끝에는 “위의 五圖는 天道에 근본하는 것으로 그 功은 인륜을 밝히고 덕업을 힘쓰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다시 「第六心統性情圖」로 시작되는 後五圖의 끝에는 “위의 五圖는 심성에 근원하는 것으로서 그 要는 日用に 힘쓰고 敬畏를 높이는데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둘째로는 『聖學十圖』의 「第十夙興夜寐箴圖」에 대한 서술에서 다시

天道가 日用간에 유행하여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한 자리라도 理가 없을 수 없으니 어느 곳인들 工夫를 그칠 수 있겠으며, 언제라도 정지하는 시간이 없으니 어느 때인들 工夫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退溪全書』 권7)

라 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 진리로서의 理에 대한 신념과 함께 그것이나 심성을 떠나 있지 않다는 확실한 인식과 더불어, 인간의 문제는 인간자신의 ‘心得躬行’에 있다는 것이 그 要領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程朱學에서 본디 “仁은 性(仁是性)”이라 하고 “性은 理(性卽理)”라 한다 하여, 흔히 마치 원래 풍성했던 ‘仁’이 ‘性’으로 추상화되고 더 나아가 理의 세계로 초월되어 버리고 마는 듯한 논조를 보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론적 해명일 뿐이요 본래의 뜻은 그런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유학사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한 성리학에 있어서도 理를 超出시켜 인간심성의 情意的·意志的 사실에서 유리시키는 것은 그 본지에 있어서도 그러하려니와 처음부터 별도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퇴계 성리설에 있어서 一段의 진술을 주의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퇴계학의 특징으로서 ‘理發’, ‘理動’, ‘理到’ 등의 문제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晩年說로서 제시되는 다음의 문장을 살피고 그 본의를 찾아봄이 좋을 듯 하다.

퇴계가 만년에 奇高峯에게 답한 서신에서 그 동안 논의의 여지를 남겼던 『大學』의 “格物”·“物格”에 대한 최종적 소견을 명확히 볼 수 있다. 말하자면, ‘物格’이라 할 때 사람이 物理의 極處에 이르는 것인가, 物理 자체가 사람에게 이르러는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퇴계도 기왕에는 “物格의 格”과 “無不到의 到”가 다 내가 格하고 내가 到하는 것으로 보았는데(把物格之格無不到之到, 皆作己格已到看), 이제 그러한 견해를 바꾸게 되었다고 하면서 理가 이르른다(理到)는 說을 받아들이기에 이른다. 퇴계가 朱子說을 이끌어 가면서 쓴 答奇明彦書의 一段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理가 사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一人之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은 즉 마치 理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며, 반드시 인심을 기다려야만 하고 스스로 이르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또 ‘理는 반드시 작용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是心の 작용이라고 하겠는가?’라 하였은 즉 그 작용이 비록 인심을 벗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작용의 妙가 되는 까닭은 실로 理의 발현하는 것이 인심의 所至를 따라서 이르르지 않음이 없고(無所不到) 다하지 않음이 없기(無所不盡)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격물함이 족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할 것이요, 理가 스스로 이르르지 못할까를 근심할 것이 아니다.(「答奇明彦」 『李子粹語』 권2, 窮格)

여기서 理의 작용과 사람의 마음(人心)과의 密切한 관계를 볼 수 있거니와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퇴계가 ‘理到’라 하여 理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논하고 있다는 점, 즉 理가 “人心의 이르르는 바를 따라서 이르른다.(隨人心所至而無所不到)”는 점이니, 理到 자체를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으며, 理가 스스로 이르르지 못할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物理에 이르르기(格物)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퇴계가 理發·理動·理到를 말하더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의 주체적 실존으로서의 ‘心得躬行의 實’인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理의 실재와 인간의 실존이 하나의 사실로서 귀일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理의 신묘한 작용과 인간주체의 심리현상을 아울러 볼 수 있는 본래적 심성이란 形而上下의 位置定向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것인가? 퇴계에 있어서 天理의 純善함에 근원한 ‘道心’과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이지만 세속적 욕망(人欲)으로 흐르기 쉬운 ‘人心’에 대한 구별은 필수적이었다. 국가사회적으로 문물제도가 있고 경세치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文章과 科業 또한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문장과 科業이 목표일 수는 없으며, 더구나 그것이 입신출세의 방편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유학은 경세제민의 大道이다. 그러나 퇴계는 진정한 의미의 ‘儒家’와 입신출세의 ‘俗學’을 구별한다. 鄭士誠은 門下諸生이 侍坐하였을 때에 퇴계가 이른 말을 기록하였다.

유가의 취지는 스스로 다른 바가 있다. 문예에 공들이는 것은 儒家 아니며, 科第를 취하는 것도 儒家 아니다...세상의 허다한 영재들이 俗學에 섞여서 빠져 있으니, 다시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鄭士誠錄 『李子粹語』卷1, 爲學)

근본이 무엇이며 말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本末을 顛倒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이 모두 인간의 속성인 것이다. 하지만 전자에 근원하는 ‘道心’이 主宰가 되지 못하고 후자에서 일어나는 ‘人心’이 발호한다면 온갖 세속적 비리와 파탄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 양면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 퇴계에게 있어서 理氣互發說이 주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공자의 “克己復禮”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本然之性이라 할 太極之理에 뿌리박고 그것에 말미암

음으로써 사물을 주재할 수 있는 본래적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본래적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외물에 의하여 타락할 수 있음을 이유로 하여 세간의 일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퇴계는 자칫 인간의 일상적 현실을 부정하고 진리를 다른 허황한 곳에서 찾으려는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퇴계는 金惇叔에게 답하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람들이 한갓 마음이 外物에 물들게 되는 해만 보고 드디어 사물이 마음의 해가 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일을 싫어하여 잊으려 하고, 움직임을 싫어하고 고요함에 耽溺한다. 오직 老佛之徒가 이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빠뜨릴 뿐 아니라, 吾儒의 學을 하는 이들도 차 所見에 毫髮의 차이가 있으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는 이가 드물다. 그러므로 謝上蔡와 같이 현명한 사람으로서도 이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明道는 맹자의 호연지기의 說을 이끌어 存心하는 법으로 바꾸어 가르쳤다. (『答金惇叔』 『李子粹語』 권2, 涵養)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의 주체적 진실성이란 바로 仁의 실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경지는 마음이 天理를 머금고 天理가 드러나는 實處인 한에 있어서 인간을 뛰어넘어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世間事를 주재할 수 있는 인격주체를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일상적 현실을 긍정하고, 세속에 매몰됨을 경계하며, 偏駁한 기질을 교정한다. 그러한 인격주체는 바로 形而上下的 양면을 대응 매개시킬 수 있는 마음의 바탕(根本田地)을 뜻한다. 퇴계는 이러한 인격주체를 “人極”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른바 “마음이 太極이다(心爲太極)”라는 것은 바로 “人極”을 일컫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음이 주재가 되어 모든 것에 대하여 각기의 법칙에 따라 어느 면으로든지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았다. 그 문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즉 퇴계는 答鄭子中書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마음이 곧 太極이다’라 함은 이른바 人極이란 것이다. 이 理는 남과 나, 바깥과 안이 없고 나누임(分段)도 없고 형체(方體)도 없다.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으니 하나의 근본이 되어 마음에 있다거나 사물에 있다거나 하는 구분이 없다. 움직여서 사물을 응접할 때에는 사물의 理가 곧 내 마음의 理이다.

다만 마음(心)이 주체가 되어 각각 그 법칙에 따라 응할뿐이니 어찌 내 마음으로부터 끌어낸 뒤라야 사물의 理가 된다고 하겠는가?(『答鄭子中』 『李子粹語』 권1, 道體)

그러나 퇴계가 말하는 인격주체는 理와 心이 상호매개되는 점에서 실재적이면서 실존적이다. 그것은 天下公共의 보편적 원리에 입각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자기자신에게 절실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宋學에서 仁을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또 『論語』에는 子貢이 공자에게 “널리 베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일(博施濟衆)”(『論語』 雍也)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절실한 자기확인의 과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제 퇴계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자.

子貢의 경우, ‘博施濟衆’을 말하는 것은 “仁을 자기자신에게 절실한 곳에서 구함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넓고 멀어서 관련과 교섭이 없는 데서 찾기 때문에, 공자가 이것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으로 돌아와 仁의 體를 가장 절실한 곳에서 인식하여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西銘考證講義』 『退溪全書』卷7, 經筵講義)

그리고 橫渠의 경우, “仁이란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사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仁體의 주체적 확인으로부터 비롯하지 않으면 안된다. 퇴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반드시 자기로부터 근본이 되고 주체가 되어, 모름지기 남과 내가 한 이치여서 서로의 관련이 친밀·절실하다는 의미와 온몸이 惻隱之心으로 가득 차서 사무쳐 흘러 막힘이 없고 구석구석 돌지 않는 데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그 때라야 바야흐로 이것이 仁의 실체이다. 만약 이러한 이

치를 알지 못하면서 泛泛하게 천지만물과 한 몸이라는 것이 仁이라 한다면, 이른바 仁體라는 것이 莽莽蕩蕩하여 나의 身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墨子の ‘愛無差等’과 불교의 ‘認物爲己’의 병은 다 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同上)

『論語』에 의하면 공자는 顏淵이 仁을 물었을 때에 “克己하여 禮를 회복하는 것이 仁이니, 一日이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仁으로 돌아온다.”고 하였고 이어서 “仁을 행함이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타인에게서 말미암는다고 하겠느냐?”(『論語』 顏淵)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 제사지냄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자신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吾不與祭 如不祭)”(同上, 八佾)라고도 하였다. 본래 퇴계에 있어서도 “聖學은 仁을 구하는데 있는 것(蓋聖學在於求仁)”이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웅대한 사업을 펼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仁을 절실하게 體認함이 없이는, 자기 자신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러한 정황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무릇 聖學은 仁을 구하는데 있다.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바야흐로 천지만물과 일체됨을 알 수 있다. 진실함이 이와 같은 때라야 仁을 행하는 공부가 비로소 절실하고 맛이 있어서(親切有味) 莽蕩하여 關涉이 없는 걱정을 면할 것이며, 남을 자기로 아는 잘못이 없어서 心德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程子は ‘西銘’의 뜻이 극히 완비하니 仁의 體이다’라 했고 또 이것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聖人인 것이다.(『第二西銘圖』後述 『退溪全書』 권7)

이 인용문은 퇴계가 『聖學十圖』의 「第二西銘圖」의 끝에 붙인 논술로서, 앞에서 인용한 두 문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前節에서 퇴계가 본디 邵康節의 문구였던 ‘心爲太極’을 ‘人極’으로 파악했음을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위에 인용한 문장에서 특히 ‘求仁’, ‘眞實如此處’, ‘親切有味’, ‘心德’ 그리고 ‘仁之體’와

같은 용어는 仁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주체적 진실성을 매우 간절하게 집약적으로 입증하는 문구라 하겠다.

IV. 持敬과 인간성취의 길

그러면 퇴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간성취의 길은 무엇이며,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인가? 본절에서는 첫째로, 참된 인간을 추구하는 學人의 자세로서 견실한 立志와 수행과정의 충실성이 요망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로, 인간성취의 가능근거에 대한 성리학적 이론의 해명, 그리고 인간성취의 방법으로서의 持敬의 유가철학적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해봄이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유가에서는 立志를 최우선으로 중요시한다. 공자도 “道에 뜻을 두고, 德에 근거하며, 仁에 의지하고 藝에서 游泳한다.(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論語』述而)라 할 때 ‘志於道’를 가장 먼저 놓았으며, 또 “仁이 멀리 있는가? 자기가 仁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仁이 있는 것이다.(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同上)라고 하였다. 공자는 “一貫之道”로 많이 배워서 아는 것(多學而識之)이 아니라, “나는 하나로 꿰어서 안다(予一以貫之)”(『論語』衛靈公)라고 하였다. 子貢과의 대화에 보이는 上記引用은 흔히 보이는 일은 아니나, 자신이 진리를 통관적으로 통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도 가능한 것임을 교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세간적 진리를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공자의 특징이 아니며, 일상시의 교육방법은 역시 “下學而上達”(『論語』憲問)의 방향을 취하였다.

퇴계에 있어서 학문의 목표가 성숙한 인격의 완성에 있다고 한다면, “下學而上達”이야말로 學人들이 밟아야 할 爲學의 途程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下學이 없는 上達は 불가능하겠지만, 학문의 최종목표는 ‘上達’에 있고 그 길은 원대한 것이므로 근원적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퇴계는 학자들을 이끌어 줄 때에, 일상사를 떠나서 도를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道의 源頭處에 대하여서도 말하여 주었던 것이다. 문인 鄭惟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래에서 배워 위에 도달하는 것은 진실로 정상적 순서이다. 그러나 學인들이 배우기를 오래 하여도 깨우침이 없으면 중도에 폐하기가 쉬우므로, 본원을 가리켜 줌만 못하다. 그러므로 선생께서 학자들을 가까이 이끌어서 자못 源頭處를 가리켜 말씀하시곤 하였다.(『鄭惟一錄』 『李子粹語』 권1, 敎導)

그러나 아무리 고원한 上達處를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학문의 출발점에 있어서 공고하지 못하고 수행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공허한 이상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학문할 수 있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퇴계는 答李宏仲書에서,

사람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趨向이 정당하고 입지가 굳세고 확고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 경박한 풍속에 뜻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각고 노력하기를 오래도록 하여 마지않는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答李宏仲』 『李子粹語』卷2, 爲學)

라 하였고 또 答趙起伯書에서는,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다만 공부를 엄밀하고 절실하게 하며, 독서를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며, 음미하기를 깊이 하며, 거듭 탐구하고 오래 실행한 나머지, 스스로 문호의 정당함과 단서의 분명함을 점차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나 흔히 그렇게 하지 못하며 학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얻는 바가 없이 세속에 휩쓸리고 객적은 일에 종사하여, 그 때문

에 向學之人이 세인의 지탄을 받고 있으니 이야말로 후학들이 경계하여 마지않을 바라고 퇴계는 말한다. 퇴계는 答宋寡尤書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일을 좋아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며 습성과 기이한 이론을 세워서 명예를 구하는 병통을 세상에서는 매양 向學하는 사람에게 돌려 비난하니, 세상은 진정 거칠고 편합할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른바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문에는 별로 소득이 없으면서 먼저 이러한 습성과 병통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 참으로 후생들이 절실하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 그런 것을 경계한다고 하여 流俗과 어울리고 汚濁한 짓을 할 수야 있겠는가?(『答宋寡尤書』 『李子粹語』 권4, 警戒)

그리하여 “학문의 방향이 바르고 입지가 튼튼하게 된다면(趨向正當立志堅確)”, 그 다음에는 “참된 지식을 쌓아 가고 힘쓰기를 오래 하여(眞積力久)”,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어떤 성과를 비약적으로 달성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퇴계도 “빠른 효험을 거두려는 태도(取其速效)”(『答南時甫』 『自省錄』卷1)를 경계하고, “速效를 기대하여 지나치게 박절하게 하지 말 것(無以欲速而過於迫切)”(『答李宏仲』 『李子粹語』卷1, 爲學)을 말하였다. 퇴계는 “義理가 무궁하므로 학문도 무궁하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물들므로 반성하여 고치는 일이 급하다.”(『答鄭子中』 『李子粹語』 권2, 涵養)라 하고 “의문이 많다 하여 번거로움을 싫증내지 말라. 익히기를 깊이 하여 오래되면 저절로 통할 것이다. 효험이 더디다 하여 익히기를 공들이기를 그치지 말라. 익히기를 깊이 하여 지극하게 되면 자연히 얻게 될 것이다.”(『答金而精』 『李子粹語』卷2, 力行)라 하였다. 또 그는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히 終始不變하여 퇴폐한 풍과 속에서도 우뚝서 있는 것이 어렵다.”(『答金順應』 『李子粹語』 권2, 爲學)고 하였다. 참을 알고 힘을 키우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功力과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서둘러서 速效를 내려는 것이야말로 自古及今 初學者들의 通患이라는 것이다(答南時甫). 그러한 사연은 『自省錄』의 제일 첫번 편지인 答南時甫書에 매우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2통의 서한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첫째로, 答李國弼書에 나오는 문구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 힘들여 생각하다가 도리어 마음의 병이 되기 쉬우니 차라리 사색을 중지하는 편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퇴계의 대답을 들어보자.

힘들여 생각한다면 혹 얻은 것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도리어 놀라고 두렵게 될 터인즉 실은 自得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놓아두고 사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역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너무 급박하게 하고 期必해서 얻으려 한다면 병이 될 따름이다.”

(『李國弼問』 『李子粹語』 권2, 涵養)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마땅히 당한 일에 대하여서는 平心易氣하여 포기하지 말고 생각하기를 마지않으면 열리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 靜坐法이 사람을 구속하는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물었을 때 퇴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육신(血肉之軀)이란 것은 어려서부터 전혀 얽매이지 않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靜坐收斂하려 하면 어찌 구속당하는 병이 없겠는가? 모르지기 힘들여 인내하며, 고생스럽고 쾌활하지 못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세월을 많이 보낸 다음에야 구속당하는 병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저절로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聖인에게 있어서 ‘온몸이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니 ‘공손하면서 편안하다(恭而安)’는 경지이다. 초학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拾遺』 『李子粹語』 권1, 爲學)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공부에 있어

서도 오랜 세월 동안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立地成佛’로 진리를 대번에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학문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가능한 일도 아니다.

퇴계는 南彦經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과연 “涵養과 體察은 吾家의 宗旨이며 天理와 人事는 본래 두 갈래가 아니다.(涵養體察 吾家宗旨 天理人事 本非二致)”라 함은 좋은 말이기는 하나, ‘悟’라는 한 글자를 너무 강조하여 말하면, 그것은 불교의 ‘頓超家法’으로 유가의 宗旨에는 본래 그러한 것을 들어볼 수 없다고 하였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바로 “이치를 살핌에 투철하지 못하고 공허한 것을 천착하여 억지로 찾아내려 하며, 마음 갖는 방법에 어두워 마치 싹을 뽑아 크는 것을 도와주듯이 하여(察理未透而鑿空以強探; 操心昧方而攬苗以助長)” 모르는 사이에 勞心極力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하였다. 퇴계는 心患을 다스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모름지기 세간의 窮通·得失·榮辱·利害를 一切置之度外하여 靈臺에累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하여 心氣가 항상 順境中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理致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日用平易明白上에서 看破 숙달케 할 것이다. 이미 아는 것을 바탕으로 넉넉하게 살피고 緊切히 음미하여, 마음을 쓰는 것도 아니요 쓰지 않는 것도 아닌 사이에 비취 보며 잊지 않고 해 나가노라면, 쌓아 가기를 오래 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해하여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집착하고 얽매여서 速한 효험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答南時甫』 『自省錄』 권1)

위의 논술을 통하여 우리는 퇴계학에 있어서의 구도자의 겸허한 태도와 탐구자로서의 학문적 진지성을 살필 수 있다. 퇴계의 인간학적 특징은 초월적 직관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한 점진주의적 입장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얕은데(淺)로부터 깊은데(深)로 나아가며, 실천적으로는 생소함(生)으로부터 숙달함(熟)으로 성장 발전하는 학문적 도정을 중시하는 바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뒤에 ‘持敬’의 문제를 논

할 때에 접속 수렴되어 질 것이다.

그러면 퇴계학에 있어서 인간성취의 성리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서 주요한 개념은 인간의 주재적 실체인 ‘마음(心)’과 주관·객관을 막론하고 사물에 관철되어 있는 ‘이치(理)’, 그리고 그것이 바로 理이면서 또한 内外 主客의 구분없이 소통되어 있는 ‘본성(性)’임을 지적할 수 있다. 心과 性과 理는 서로 떼일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구조적으로 이미 인간성취의 길은 열려져 있다고 하겠다.

성리학에서 마음(心)은 몸(身)의 주재이고, 敬은 또 心의 주재이다. 心의 주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敬이 필요하다. 그러나 心을 떠나서는 敬肆間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다. 心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학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지만, 心은 퇴계학에 있어서도 핵심개념이 아닐 수 없다.

퇴계는 만년인 69세시 경연에서 선조와 더불어 ‘心’에 대하여 문답하였다. “心統性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퇴계는 대답하였다.

氣는 形이 되고 理는 그 가운데 갖추어 있습니다. 理와 氣가 합하여 心이 되고 그것은 一身의 主宰가 되는 것이니, 性情을 統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性을 담고 있는 것도 心이요, 發用하는 것도 또한 心이니, 이것이 心이 性情을 통괄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言行錄』卷7, 年譜下)

그리고 다시 마음의 ‘虛靈’과 ‘知覺’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러했다.

‘虛靈’은 心의 본체이며 ‘知覺’은 사물을 응접하는 근거입니다.(同上)

퇴계의 성리설은 양적으로도 浩繁하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인용만으로도 그 요령을 볼 수 있으니, 그는 심체를 확인하고 그 주재성과 작용성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그러면 虛靈不昧한 心은 어떻게 性을 매개로 하여 理에 관여하는가? 그리하여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능동성을 발휘하면서 외물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性理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관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心의 관여를 떠나서 그것은 의미를 상실한다. 心·性·理의 관계에 있어서, 心은 “널리 열린 마음으로 크게 공평할 수 있으며, 사물이 이르름에 순리롭게 대응할 수 있다.(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는 程明道の 명제(『定性書』)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性은 理이며 理는 사물이 아니므로 내외본말이 없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문제는 心이 사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능동적이며 순리롭게 처리하면서, 자기동일성을 유지 확보하는가에 있다.

이제 퇴계의 논술을 보기로 하자. 퇴계는 答李達·李天機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物은 비록 만가지로 다르지만 理는 하나이다. 오직 그 理가 하나이기 때문에 性에 内外之分이 없다.

군자의 마음(心)이 ‘廓然而大公’할 수 있는 까닭은 능히 그 性을 온전히 하여 내외가 없기 때문이다. ‘物來而順應’할 수 있는 까닭은 한결같이 그 理를 따라서 피차가 없기 때문이다. 실로 物이 바깥 것이라고만 알고, 理에 피차가 없음을 알지 못하면 理와 事를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니 진실로 옳지 않으려니와, 또 物이 바깥 것이 아니라고만 알아서 理를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중심에 주체가 없어서 物이 마침내 빼앗는 것이니, 또한 옳지 않다.

오직 군자는 능히 性이 내외가 없음을 알아서 사물을 응접함에 한결같이 理를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날마다 외물을 접하더라도 物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澄然無事하여 性이 定하게 되는 것이다.(『答李達李天機書』 『退溪全書』 권13)

전절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答鄭子中), 퇴계에 있어서 理는 物我·内外·分段·方體가 없는 것이었다. 理는 본래 성리학의 기본개념이

기도 하다. 事事物物의 理가 吾心의 理이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하여 一理인 것이다. 그러면 인간주체로서의 心은 어떻게 내외가 없는 理를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퇴계의 논술에 의하면, 心의 理에 대한 관계는 주객을 관철하면서 包越하는 一理에 대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心은 내면적 주관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물에 대하여 개방적 연관성을 갖는다. 여기서 物我的 대립이 해소된다. 그러나 理에는 피차가 없고 理와 事는 二致가 아니므로 心이 사물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다. 性理를 매개로 하여 주객을 넘어서는 것일 뿐 인간주체와 사물이 혼동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理를 표준으로 하는 뚜렷한 인간주체는, 대물관계에 있어서 외물에 이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자의성에 빠지지 않음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다. 여기에 사물의 구체적 사실성과 인간의 내면적 주체성이 뚜렷이 살려지면서 양자의 본질적 연관성에 의해 物我的 대립이 해소된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把持하여 관계하는 주체는 역시 사람의 마음(心)인 까닭에, 퇴계에 있어서 ‘心’의 의의를 재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心의 主宰’로서의 ‘敬’에 대한 탐구가 퇴계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까닭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퇴계의 敬사상이 인간성취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간략히 성찰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心은 身의 주재이며, 敬은 心의 주재이다.(心者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程林隱 「心學圖說」)라 함은 성리학의 기본명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周濂溪의 主靜論이 程朱에 있어서 動靜을 일관한 경사상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과 그러한 경사상이 퇴계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어 핵심개념으로 부각되어 있음도 널리 알려진 바이다. 실로 퇴계는 그의 『聖學十圖』의 마지막 그림인 「第十夙興夜寐箴圖」의 한복판에 오직 ‘敬’이라는 한 글자를 놓았으니, 여기서 퇴계가 그의 주저인 『聖學十圖』를 경사상으로 귀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敬의 인간학

적 의미를 살피는 데 요긴한 수종의 문헌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퇴계의 答金惇敍書 1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문을 함에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오직
敬을 위주로 하여, 動과 靜에 잃어버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사려가
싹트기 前에는 心體가 虛明하고 本領이 深粹할 것이며, 思慮가 發하였
을 때에는 의리가 밝게 드러나고 物欲이 물러나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거듭해 가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이 요법이다.(『答金惇敍』 『李子粹語』 권2, 涵
養)

여기서 특히 유의할 바는, “敬을 위주로 하여 動과 靜에 잃어버림이
없어야 한다.(敬以爲主 動靜無失)”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세속적으로
몰욕에 탐닉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厭動 喜靜하기 쉽다. 퇴계도
허다한 선인학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그러한 폐단에 빠졌음을 지적하고
후학의 경계를 삼고자 하였다.

퇴계는 「進聖學十圖筭」에서 持敬의 법을 要領十分하게 서술하였다.
즉 “敬을 지니는 공부(持敬)란 思와 學을 兼攝하며, 動과 靜을 觀測하
며, 內와 外를 통합하며, 顯과 微를 일치시키는 도리(持敬者 又以兼思
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임을 밝혔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일면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는 것이며, 그러한 불
균형을 바로 잡아 전인적 인격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敬’이
라고 보는 것이다. 敬이야말로 ‘有事 無事’·‘有意 無意’·‘主觀 客觀’·
‘先驗 經驗’·‘形上 形下’ 등 어느 것에도 관여하여 그것의 존재의미를
부여하고 확인하며, 그 하나 하나를 통일된 인격주체 속에 포용하고 수
렴시킬 수 있는 핵심체이다.

진정한 인격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心)’이 그 본래성을 확보하고 발
휘하기 위해서는 敬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敬이 바탕이
되어 성장 성숙하는 인간주체는 그 내면적 실상에 있어서 ‘思’와 ‘學’을

주요한 속성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퇴계는 “성인의 천언만어가 存心の 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공부로 말하면, …思자와 學자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年譜, 退溪 69歲, 宣祖에게 進言)라고 말한다. 퇴계는 「進聖學十圖筭」에서 이미 “思와 學이란 서로 꺾워 주고 서로 보탬이 되는 것(思與學 交相發而互相益也)”이라 하였다.

먼저 ‘思’에 대해서 살핀다면, 퇴계는 그 근거를 맹자의 이른바 “心の官은 思이니, 생각하면 깨닫고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失之)”(『孟子』 告子上)라 함에 두고 있다. 생각(思)이란 마음(心)의 중요한 기능(官)이다. 퇴계는 「進聖學十圖筭」에서心和 思와 理를 관련시켜 이렇게 썼다.

心은 方寸에 갖추어져서 至虛至靈하며, 理는 圖書에 드러나 있어서 至顯至實하다. 至虛至靈한 마음으로 至顯至實한 이치를 탐구한다면 언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心이 虛靈하여도 만약 주재가 없으면 일이 앞에 이르러도 생각하지 못할 것(不思)이며, 理가 至顯至實하여도 만약 照管함이 없으면 눈으로 항상 접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다.(『進聖學十圖筭』 『退溪全書』卷7)

그러므로 생각을 다하는 것(致思之)이 매우 중요하다고 퇴계는 말하였다.

다음 ‘學’에 대하여 살핀다면, 퇴계는 그 典故를 공자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論語』 爲政)라 함에 두고 있다. 몸(身)으로 익혀 배우는 것은 유학의 특징이다. 퇴계는 역시 身과 習과 事를 관련시켜 말하기를,

學이란 것은 그 일(事)을 익혀서(習) 진정으로 실천(踐履)하는 것을 말한다.(同上)

라 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마음(心)으로 이치(理)를 생각해 내고(思之), 다른 한편으로는 몸(身)으로 일(事)을 배우고 익혀서(學習), 이 두 가지를 때로는 병행시키고 때로는 관계시켜서 실행하여 마지않는다면, 초기에는 따로 해 가던 것이 종당은 하나로 합치되어 어느 면으로도 굴하지 않는 원숙한 인간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을 많이 알고 힘쓰기를 오래 하면, 자연히心和理가 서로 머금어서 모르는 새 融會貫通하며, 習과 事가 서로 익숙하여 점차 坦泰安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작할 때는 각기 따로 하던 것이, 이제는 능히 하나로 합치하게 된다.(同上)

V. 結 言

퇴계의 사상을 고찰할 때 우리는 퇴계에게 있어서 이념과 실천은 필수적 관계에 있으므로, 그의 학문과 인간적 면모를 함께 고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本題에서 ‘退溪學’적 인간상이라 하였으나 한갓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했던 것은 그러한 까닭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퇴계학적 인간상이란 바로 퇴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퇴계 자신의 인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계는 한국성리학의 태두이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특징은 ‘主理論’이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理를 초월적 실재 또는 객관적 관념으로 보아, 마치 그것이 인간을 넘어선 것, 인간과는 거리가 있는 것, 더 나아가 인간이상의 他者로서 인간을 규제하는 원리와 같이 인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퇴계의 理는 極尊無對하여 지극히 존엄한 것이지만, 그것은 위압적 권위로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지극히 친근

하며, 인간자신에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요, 그보다도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다. ‘太極之理’는 바로 ‘人極’인 것이다. 理의 발용은 인간의 주체적 심성에 있어서 넘쳐흐르는(流露) 것이니, 개개인은 그 존재근거로서 太極之理인 人極을 주축으로 하는 까닭에 존엄한 인격 주체가 되는 것이다. 理의 體用은 바로 인간주체에서 발견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 확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주체적 진실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퇴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다시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퇴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심성을 떠나 궁극적 진리를 말할 수 없고, 太極之理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일상적 태도는 지극히 겸허하였다.

퇴계에 있어서 주체적 진실성이란 한갓 형이상학적 본질이거나 논리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것들이 이미 용해되어 있고, 인간의 마음(心)이 驗得하고 있는 주체적·실존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마음의 바닥이 퇴계에 있어서 ‘切己根本上做工夫’나 ‘日用躬行之實’, 그리고 ‘根本田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퇴계의 인간이해는 그 본령에 있어서 긍정적이며 낙관적이다. 인격주체는 사람들이 속한 신분의 차이나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 존엄성에 있어서 다름이 없으며, 경제·사회 등 어떠한 외곽적 조건에 의해서도 인간의 주체적이며 기본적인 관계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퇴계에게 있어서 ‘心得躬行’을 떠나서 진리 자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인간자신이 성장, 성숙함에 있어서도 ‘心得躬行’이 아니고서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의 도정에 있는 인간은 한갓 낙천적일 수만은 없고, 비관적인 것은 아니나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려와 긴장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고심이 있다. 인간이 아무리 존엄한 존재라 하더라도, 호연장담할 수 없다. 희망과 우려를 함께 지니면서, 겸허

한 태도로 성장하고 향상하여야 한다.

퇴계는 인간자신에게 臨在한 구극적 진리를 말하지만, 인간 스스로 오만하지 않다. 한없이 겸허한 가운데 인간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다. 소망하는 바 인간성취의 길이 있으므로 희망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성은 정령 떨어져 버리기 어렵다. 공자도 “배움은 아직 이르르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오히려 잃어 버릴까를 걱정하라.(學如不及 猶恐失之)”(『論語』泰伯) 하였고, 曾子는 “仁으로 책무를 삼았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다음에 그만 두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同上)라 하였듯이, 퇴계에 있어서 인간성취의 역정은 ‘眞積 力久’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悟’라는 한 글자로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퇴계학에 있어서도 ‘人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心)은 만사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이치(理)와 상호매개됨으로써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갓 주관적 ‘관념론’에 빠지거나, 또는 객관적 ‘경험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퇴계는 그의 持敬論에서 이지적 탐구로서의 생각(思)의 기능과 실천적 행위로서의 배움(學)의 기능을 말하여, 이론과 실천의 어느 면도 결여됨이 없이 ‘相發’·‘相益’되도록 함이 학문의 요령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淺’→‘深’,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生’→‘熟’의 방향으로 성장 성숙하는 학적 도정이야말로 “下學而上達”을 방법으로 하는 퇴계학의 특징이라 하겠다.

예나 이제나 인간의 주체적 성찰은 아쉬운 것이다. 오늘의 기능주의 시대는 미래에 있어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주체의 깊이와 객체의 넓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서로 만나야 한다. 인간사회는 보다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이다. 인류세계가 그러할수록 인간적 진실성에 대한 주체적 성찰은 더욱 아쉬운 바라 하겠다.